

“볼거리·먹거리 가득...메리 크리스마스”

양림&크리스마스 축제...주민 참여 공연 흥 돋워 체험·놀이 부스 다채...전날엔 거리 퍼레이드도

“가족과 함께해 더욱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25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 남구 양림오거리 일원에서 ‘2024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의 주민참여공연이 시작됐다.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역 주민들과 광주 남구 기독교교단협의회가 개최해 오다 지난해부터 남구청이 주관하고 있다.

이날 주민 참여 공연에는 지역 동아리 등 총 18개팀이 참여했다. 첫 순서로는 양림동 주민들로 구성된 ‘언제나 봄날’팀이 우쿨렐레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며 성탄절 분위기를 돋웠다.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자 일부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공연을 구경

했고, 행사의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신나했다.

언제나 봄날에 이어 무대에 오른 ‘연희 한우리 예술단’은 화관무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체험 등 즐길거리도 가득했다. 공연에 앞서 양림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는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체험이 열려 학강초등학교 학생과 주민 등 50여명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장 주변에는 축구, 농구, 양궁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은 가족끼리 편을 나눠 대전을 펼치기도 했다.

즐겁게 뛰어 노는 후에는 먹거리 부스에서 해물라면, 바비큐, 굴떡국 등을 사와 나눠 먹으며 명절 같은 크리스마스



를 보냈다.

자녀와 함께 온 이장식(42)씨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아이들과 공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겨울 축제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이브인 전날 양림오거리 일원에선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춥불행진)가 전

오늘의 날씨

인천	서울	대전	강릉
-1/0	-1/1	1/5	2/6
전주	광주	대구	부산
3/5	3/7	1/7	5/10
목포	제주	여수	
6/7	9/11	5/9	
흑산도			
6/8			

해돋이 07:39 해질 17:27
달돋이 03:07 달지 13:46

광주	구름많음	3/7
목포	구름많음	6/7
여수	구름조금	5/9
나주	구름많음	2/7
완도	구름조금	5/10
구례	구름조금	2/7
강진	구름조금	4/9
해남	구름조금	4/9
장성	구름많음	2/7
보성	구름많음	1/7
순천	구름많음	2/8
영광	구름많음	4/7
진도	구름조금	6/8
흑산도	구름조금	6/8
고흥	구름조금	2/10

● 생활정보지수

☀️ 날씨가 40 🧥 빨래 50 🚰 세차 60 🏃 운동 40

감기 조심해요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실내운동 즐겨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0	1.5-3.5
남해 앞바다(북)	1.5-3.5	2.0-4.0
남해 앞바다(남)	1.5-3.0	2.0-4.0
남해 앞바다	0.5-1.5	1.0-2.0
서부 앞바다(동)	1.5-2.5	1.5-3.5
서부 앞바다(서)	1.5-2.5	1.5-3.5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2월 27일(금)	☁️ (-1/5)	☀️ (-7/1)	☀️ (-4/4)	☁️ (-4/4)	☁️ (5/8)
28일(토)	☁️ (-2/4)	☁️ (-7/1)	☀️ (-4/4)	☁️ (-3/4)	☁️ (6/10)
29일(일)	☁️ (0/8)	☁️ (-5/4)	☀️ (-2/7)	☁️ (-2/8)	☁️ (6/13)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내년 광주세계양궁대회 붐업 ‘찾아가는 양궁’ 인기

안산 등 실업선수들, 18개 학교 760여명 양궁 체험 지도

광주시가 내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해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등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양궁체험 행사를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서 ‘찾아가는 양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양궁체험에는 광주시, 광주는행, 남구청 양궁팀과 광주시 장애인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7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했다.

학생들은 양궁 교구를 활용해 기본 동작과 기술을 배우고 조별 게임을 통해 보다 쉽고 즐겁게 양궁을 체험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양궁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다음에는 양궁장에 가서 실제로 활을 쏘보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보러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사로 나선 실업팀 선수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을 보며 단

순 체험을 넘어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양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9월 광주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연달아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계적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온 세상에 자비와 은총을... 성탄절인 25일 오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들이 펼쳐진다. /김애리 기자

광주 북구 행정력 올해도 빛났다

대외 평가·공모 78회 수상·선정...328억 확보

광주 북구가 올해도 수준 높은 행정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 부처 등 각종 대외 평가·공모에서 총 78회 수상·선정돼 상사업비 328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성과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전국 지자체 1위,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지역 금융 협력 모델 발굴 지원사업 평가 전국 기초지자체 1위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1

2회 연속 최우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을 기록하며 총 41개 표창을 수상했다.

공모사업 주요 실적은 행안부 주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첨단지구 선정됨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도심 수해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완료한 게 꼽힌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원,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e커머스 라이온 타운 조성사업 12억원 등 총 37회 공모 선정으로 구정 주요 현안 추진의 동력을 강화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GANGJINCITY

문의 : 062)650-2099